

[보도자료] 쿠팡 ‘착한상점’, 금산군과 손잡고 ‘금산인삼 우수 상품 기획전’ 진행

2026. 10. 7.



- 내달 30일까지 금산 인삼·홍삼 등 800여개 상품 선봬
- 2023년 업무협약 이후 판로 확대 지원 지속 PB 상품도 협력

2026. 10. 07. 서울 - 쿠팡 ‘착한상점’이 충청남도 금산군과 협력해 오는 11월30일까지 ‘금산인삼 우수 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로켓배송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금산 인삼 원물을 비롯해 홍삼, 수삼, 인삼청, 액기스, 절편, 건강음료 등 800여개 인삼 상품을 선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삼 생산·유통 중심지인 금산군에서는 현재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열리고 있다. 쿠팡은 금산군과 협력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으며,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와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 2023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맺은 지역 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입점 상담회,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도 금산군과 협업체 2023년 7월 ‘6년근 금산세척인삼’, ‘가득 담은 금산 세척 수삼’ 등 PB 상품 10종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를 통해 금산 인삼을 전국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쿠팡 ‘착한상점’은 지역 농어촌과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상생 전문관이다. 쿠팡은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알리고 지역 농가와 중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착한상점’을 통해 전국 각지의 우수 상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